

비디오저널리스트의 공공저널리즘 수행을 위한 제언

조 숙 희*

1. 들어가는 말

2002년 월드컵 열풍이 말해주듯, 방송이라는 매체가 없다면 지구촌 사람들은 조그만 축구공의 움직임에 따라 동시에 울고 웃으며, 환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평범하게 넘길 사건은 아니다. 방송이라는 매체가 없다면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방송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매체로 확실하게 군림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방송은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다. 디지털 기술력은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아날로그방송과는 다른 혁명적 발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방송 장비의 고기능화, 다기능화, 소형화, 저렴화는 영상제작 시스템을 새롭게 잡아가게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은 국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차원에서는 다기능, 고화질, 고음질 그리고 쌍방향방송 등의 획기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의 혁명적 발전은 미디어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자세와 의식에도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결국 삶의 형태와 내용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즉,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방송 송신자와 수신자가 이분화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 방송메시지들은 일방향적으로만 흐를 뿐이었다. 그러나 디지털방송시대 개막과 함께, 다채널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폭발적 채널에 담겨질 방송프로그램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사 내부에서만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 따라서 채널이 많아진 만큼 좋은 방송 즉, 경쟁력 있고 저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술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디지털캠코더와 디지털편집기의 고기능화, 다기능화, 저렴화, 간편성은 방송제작에 있어서 1인 혹은 2인 제작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제작시스템의 간편성은 방송제작비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방송시대가 탄생시킨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활약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제작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지상파방송사에서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사 밖의 제작자들(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 프리랜서 혹은 프로덕션 소속이거나 독립제작시스템으로 활동하고 있다)이 담아내는 방송 내용들은 기존의 방송사 내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과는 상당부분 차별화 되어 있다. 기존의 방송 내용들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엘리트층 중심이나 중산층

* 경남정보대학 방송영상계열 전임강사

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었다면, VJ프로그램에서는 공공 친화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삶의 형태와 세상사의 다양한 면을 구석구석 비추어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인식과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공공저널리즘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발휘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6mm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양한 소재와 밀착취재가 가능하게 되어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비롯한 공공의 목소리와 생활상, 애환, 기득권에 대한 반발 및 다른 시각들, 에피소드 등을 담고 있다. 그 동안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수용자들은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노동자집단 등에서 6mm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디지털방송시대에는 “나는 표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듯,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나 주변의 이야기 혹은 공공의 표현방식이 영상적으로 바뀌었음을 VJ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공공의 눈과 귀가 되어서 공중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전문성과 철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방송의 쌍방향성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들의 인식과 함께 공공저널리즘의 확산됨에 따라,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언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디지털기술과 방송제작시스템의 변화

2.1 새로운 영상제작방식

새삼스럽게 기술의 발전이 예술방식을 바꾸어

왔으며, 인류의 삶의 형태와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음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영화 <타이타닉>은 디지털기술과 인간 감성의 절묘한 만남이라고 하겠다. 또한 텔레비전이 생겨나서 영상예술을 만들어 낸 백남준의 예는 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과 함께 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을 빌려 살펴보면, 디지털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명성이라고 하겠다. 디지털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방송구조는 물론 수용자의 수용행위까지 바꾸어 놓고 있으며, 테크놀로지가 방송에 끼치는 영향을 변화(change)가 아니라, 변환(transformation)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방송의 형태와 내용이 모두 바뀌고 있고, 바꿀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방송 발전에서도 라디오는 1940년대 초 녹음기가 생겨남으로써 많은 방송자료들의 축적이 가능지기 시작하였고, 텔레비전은 1960년 중반 녹화기가 들어오면서 더욱 풍부한 드라마적 표현이 가능해졌다.

1981년 최초의 전문가용 ENG카메라 도입되었다. 당시의 ENG카메라는 기존의 뉴스취재나 영상제작에서 필름을 사용해오던 관행을 깬으며, 그 기동성과 민첩성을 토대로 주로 스튜디오 제작에 한정되어 있던 방송 프로그램을 전세계의 현장으로 확장시켰다. 즉, 드라마에서의 외부장면 촬영이 삽입되는 비중이 커지고 영상의 장면 전환이 다채로워졌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뉴스의 현장성을 매우 강화되는 등 제작방식이 바뀌었다. 또한 연예프로그램에서는 가수와 카메라가 동시에 움직이는 동적인 영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

1) 박영상(1999) : “바뀌어야 할 방송 저널리즘”,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토론회 자료.

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기술변화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럼, VJ제작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핵심인, 6mm디지털 카메라와 비선형(Non-linear) 편집기의 발전을 살펴본다.

먼저, 6mm디지털카메라는 기존의 가정용 캠코더의 크기이지만 화질은 방송용 베타캠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²⁾ 가격은 기존의 방송용 카메라에 비해서 1/20~1/30 정도로 저렴하다. 이처럼 6mm 디지털카메라가 지닌, 저 예산 테크놀로지로서의 특성은 그동안 기자재의 열세로 많은 한계를 느껴오던 독립 영상제작인의 돌파구가 되었다.

과거의 ENG를 통한 혁신적인 변화 이상으로 우리사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1996년에 등장한 Mini DVC(Digital Video Cassette), 즉 6mm 디지털카메라이다.³⁾ 이러한 6mm 디지털카메라를 통한 비디오 저널리즘은 제작주체 자체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 즉, 90년대 중반부터 소형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VJ(Video Journalist)시스템은 영상물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특성과 장점을 통해서 방송제작 시장에 점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VJ의 탄

생 역시 디지털 소형카메라 및 디지털 편집기술의 변천과정에서 파생된 제작 패러다임의 커다란 형질변환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적어도 촬영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넘어 펜을 갖고 글을 쓰듯 제작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⁴⁾

다음은, 비선형(Non-linear)편집기의 발전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이 영상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는 편집장비 때문이었다.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DTV(Desk Top Video) 시스템 혹은 비선형 편집시스템이다.⁵⁾

이와 같은 디지털 소형카메라와 편집기술의 발전은 대중성과 간편성으로 이어져, 영상의 1인 제작을 가능케 하였으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제작기술 인프라의 측면에서 VJ의 가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시민사회의 기반 위에서 공공저널리즘이 형성된다고 본다.

2.2 비디오저널리즘의 특징

비디오저널리즘이란, 저널리즘의 도구로서 텔레비전 사용에 대하여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최근 공학적 기술의 진보는 방송저널리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더욱 가볍고, 작고, 값이 싼 카메라와 기능은 텔레비전의 활용 방식은

2) 일반적으로 수평해상도를 통해 화질과 관련된 영상기자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카메라 기준별 수평해상도는 8mm 카메라가 240본, S-VHS나 Hi 8mm는 400본, 6mm 디지털카메라가 500본, 베타캠은 700-800본 정도이다. 6mm 디지털카메라의 화질이 아직은 베타캠에는 못 미치더라도 디지털은 여러번 복사해도 열화가 없을 뿐 아니라, 매체별 지상파의 수평해상도가 300선 내외이고 위성방송이 330선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 역시 방송용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3) 12.7mm 테이프를 사용하는 베타캠과 달리 DVC 포맷은 6.35mm 디지털테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6mm 디지털카메라>라고 부른다. 기존에도 8mm나 Hi 8mm 등의 소형 카메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Sony-VX1000, Panasonic AJ-E6i 6mm 캠코더 등이 등장한 이후에야 KBS, MBC 등 국내방송사에서도 이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제작한 VJ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방송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되기 시작하였다.

4) 최이정·박정희: "영상제작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의미", 방송연구 2000 여름호, pp.336-337.

5) 비선형 편집이란,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디지털 신호로 녹화하여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편집기의 player와 recoder를 선으로 연결하고 각각의 분리된 테이프를 사용하여 편집을 하는 것을 리니어(선형)편집이라 한다. 널리 알려진 편집방식인 DTV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편집과정은 간편해진다. 원하는 대로 자료를 컷, 페이스트하여 손쉽게 편집할 수 있으며, 요즘의 발전된 동영상 소프트웨어(adobe, premier, after effect 등) 및 어느 정도 realtime편집을 가능케하는 저렴한(200만원대) 편집보드의 보급과 맞물려 고급효과까지를 혼자서 편집해낼 수 있다.

완전히 변화시킬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보다 친밀한 매체이고, 이러한 비디오카메라의 보급은 텔레비전 매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메라를 타자기나 연필로 이용하여 텔레비전 매체에 프로그램으로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디오저널리스트란 카메라와 저널리스트의 짝지음이다.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작고 손잡이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는 출판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취재 대상에 대하여 노트와 펜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펜과 종이가 없는(요사이 는 노트북도 활용을 많이 함) 프린트저널리스트를 상상하지 못하듯, 소형카메라 없는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비디오저널리스트는 24시간 카메라를 휴대하면서, 즉각 카메라를 담기도 하고, 어떤 기획에 의해서 취재에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전통적인 취재기법보다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소재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즉, 혼자서 일하는 1인 제작시스템인 비디오저널리스트방식은 현재의 방송저널리즘보다 훨씬 더 높은 친밀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⁶⁾

3. 디지털방송시대와 공공저널리즘

3.1 공중(public)과 공공저널리즘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시청률과 신뢰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뢰도가 높다고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방송은 사람들의 유희적 본능(Homo Ludens)을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언론 역시 국민들에게 불신과 반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신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기, 독자들로부터의 불신 등에서부터 미국에서 공공저널리즘을 등장시킨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⁷⁾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 운동을 연구자에 따라서 시민저널리즘 또는 공공저널리즘 등으로 불리고 있다. 로젠(Jay Rosen)과 메리트(David Buzz Merritt)는 '공공저널리즘(public journalism)'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포우이(Edward M. Fouhy)는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으로 부르기를 좋아한다.⁸⁾

공공저널리즘 또는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의 보도과정에 시민을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언론 형태를 말한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공공생활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사를 언론보도의 중심적 의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언론이 보여주고 있는 취재관행이나 보도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7) 김민남(1998) :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22.

8) 로젠은 메리트와 함께 공공저널리즘 운동의 창시자이다. 로젠은 현재 뉴욕대학 언론학 교수이자 이 대학 '공공생활과 언론에 관한 프로젝트'의 소장이다. 언론실무 경험은 거의 없다. 메리트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발행되는 '위치타 이글(Wichita Eagle)'지의 편집책임자이자 현직 언론인으로서 시민저널리즘에 관한 유명한 저서 <Public Journalism and Public Life>를 펴냈다. 포우이는 시민저널리즘 연구를 지원하는 '시민저널리즘을 위한 퓨 센터'의 소장으로 월남전 당시 CBS방송의 사이공 지국장 겸 워싱턴 지국장, 1988년과 1992년 대통령 선거 후보토론회원칙 책임 프로듀서 등 20 여년의 언론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사람은 미국에서 흔히 공공저널리즘의 가장 영향력있는 트로이카라고 불린다.

6) Michael Rosenblum : "Video Journalism : Theory & Application", pp. 1-2.

언론 본래의 모습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서려고 하는 자세라고 하겠다. 공공저널리즘은 우선 시민들이 자신의 공공생활에 보다 싶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천 지향적이며, 언론사의 취재나 보도과정 자체의 변화가 야기된다.

로전은 “오늘날 저널리즘은 오히려 정치체제와 시민들 사이를 분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은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널리스트들은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을 향상시키고 공공생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널리즘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지향의 새로운 저널리즘 형태를 공공저널리즘이라고 규정한다.⁹⁾

공공저널리즘은 기존의 저널리즘이 시민을 소외시키며 저널리스트나 전문가들만의 장으로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기존의 저널리즘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며, 나타난 문제에 대해 토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일회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만 제기한다고 본다.

3.2 VJ(Video Journalist)의 등장

디지털방송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비디오 저널리스트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방송 장비’ 즉, 카메라와 편집기 등이다. 이는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서 종이와 펜이 있어야 취재가 가능하듯이, 방송제작을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 도구인 것이다.

원래 외국에서의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출발은 1인 제작 뉴스보도(news report)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journalist)란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그 후 단순 뉴스의 보도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로 VJ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VJ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다큐멘터리적 성격이 강해 보이며, 따라서 저널리스트적 글쓰기 이외의 다른 서사적(narrative) 글쓰기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VJ의 저널리스트 개념은 기존의 단순 뉴스의 개념에서 벗어나 확장된 관점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관행 속에 비디오저널리스트는 기존의 분업식 혹은 팀 제작방식의 개념과 차별화 된 새로운 영상제작 시스템인 1인 제작방식(one man producing system)의 제작자를 통칭한다. VJ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은 1996년 처음 출시된 6mm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이다. 우리나라에서 6mm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방송에서 VJ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Hi 8mm시대부터 존재했다. 한 예로 미국 뉴욕 맨해튼 지역의 케이블 TV 24시간 뉴스채널인 NT1(New York One News)은 이미 1993년 개국 때부터 기자 한 명이 캠코더를 직접 들고 나가 취재, 촬영, 리포팅, 편집 등 전과정을 혼자 다 처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액세스방송 혹은 일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 텔레비전에서 VJ방식 도입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방송용에 육박하는 화질을 지닌 6mm 디지털카메라 등장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날로그 소형카메라의 화질은 일반 방송화질과 격차가 너무 심하고 디지털과 달리 한 번 복사할 때마다 화질은 급격히 저하되어 일반방송용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

9) Jay Rosen, "Behind Public Journalism," in *AMPE Leadership Report: Public Journalism-What It Means, Who Is Practicing It, How It Is Done*, p. 4.

10) 강형철(1998) : "방송제작방식의 변화에 관한 논의-수확체증의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연구(1998년 겨울호).

능하다. 6mm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선보인 시기는 우리나라나 외국이 거의 마찬가지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편집기를 조작할 수 있으며, 영상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디오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문기자나 방송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디지털방송장비를 만지는 것이 저널리스트로서의 마스터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끔 보게 된다. 이들의 안일한 생각들은 아마추어 이상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정신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SBS의 “휴먼TV, 아름다운 세상”은 카메라 1인칭에서 움직인다. 1인칭 제작자의 시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형식에서도 자유로움을 주고 있다. 이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기법이다. 이 경우는 영상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기법이다. 카메라와 주인공이 하나가 되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여기서 얻은 영상은 다음에 오는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내면의 모습이다. 감동이란 인간의 가식을 벗겨낼 때 온다. 이는 고급예술에서도 마지막으로 얻어내려는 표현기법이다.

4. VJ(Video Journalist)와 공저널리즘

4.1 공공저널리즘의 본질과 VJ(Video Journalist)

공공저널리즘은 애초에 신문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공영방송, 상업방송, 공영라디오방송 그리고 상업라디오 방송들로 퍼져나갔다. 공공저널리즘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공토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Glasser, 1999). 또한 공공저널리즘은 시민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하고 일종의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즉, 공공저널리즘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public sphere)의 활성화를 지향한다(Christians, 1999).¹¹⁾ 결국 공공저널리즘은 공공생활(public life)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건강한 민주주의, 지역사회와의 연결, 시민적 참여 등의 목표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공저널리즘의 본질은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제작하는 VJ프로그램에 상당부분 녹아 있다고 본다. 먼저, VJ프로그램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과 인물을 기록한다면 다큐멘터리는 거기에 시간성을 가미한다. 한편, VJ프로그램은 사회와 역사의 단면을 그려내는 것이다. 둘째, 카메라의 거리 차원에서 본다면 뉴스는 대상과 2미터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접근한다면, 다큐멘터리는 1미터 이내로 가까이 혹은 3미터 이상 떨어져 사물을 본다. VJ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대상을 살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때로 VJ프로그램은 시각이 주인공의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 뉴스는 인물과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원자료로 기록하고, 다큐멘터리는 사건과 인물의 역사성 혹은 의미성을 그린다면, VJ프로그램은 인물이나 사건의 피쳐스토리를 그려낼 수도 있다.

또한 VJ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제작상의 특성이 있다.

첫째, 현장의 투철성이다. 영상의 아름다움이 라든가 명료성도 필요하겠지만 인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과 거기에 부합한 음향이 따라

11) 윤태진·강내원(2001) :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2001, 겨울호), p. 316.

가 주느냐가 관건이다. 인물, 사건의 내부로 들어가 그 곳 혹은 뒤를 비출 수 있느냐이다. 그러므로 내레이션이나 자막처리에도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대상의 살아있음이다. 대상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 할 것이다. 취재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줄이는 사전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카메라가 노출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이 그것이다.

셋째, 짧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자체적인 갈등과 절정 그리고 반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 같은 장르에서만 극적 반전을 기대하지만 연극이나 사실 프로그램에서도 극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VJ는 성격적으로 생활기록 뉴스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최고 근간은 일반 서민이다. 전쟁에서 장군이 공을 세우지만 그 승리의 원천은 앞장서서 싸우다 죽은 병사이듯이, VJ는 이들 병사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다.

다섯째, 독립에 대한 기대이다. 개인의 독특한 영화를 들여다보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 개인 VJ시대가 된 것이다. 좋은 기회서만 있으면 돈을 투자할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여섯째, 자유로움의 추구이다. 자유로움은 영상시대의 새로운 제작방식이다.¹²⁾

방송프로그램의 목적은 제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 확산되는 데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중(public)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저널리즘의 본질이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시대의 적극적인 수용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

키고 방송이 진정한 공론장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 '영상 게릴라'라고 불리는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과 소재를 의제로 설정한다면, 일정부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방송은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제작자에 따라서 기획 의도와 편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비단 토론 프로그램처럼 일반 공중의 직접적인 출연을 유도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현장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취재와 촬영, 편집 등을 통하여 공중의 이슈에 대하여 제작함으로써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이 발휘된다고 본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은 실로 중대한 일이며,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고 해서 모두가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아닌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공공저널리즘 수행을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디지털방송 장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신문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트와 펜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취재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록하고 메모를 하며,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VJ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디오저널리스트는 6mm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의 카메라와 편집장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만 되겠다.

둘째, 저널리스트적인 의식을 지녀야 한다. 한마디로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흔히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들 한다. 이 말은 방송이 태생적으로 공기(公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상적 사람들의 일상적 이야기를 담아내고 끄집어내는 비디오저널리스트의

12) 김광욱(2001) : "VJ프로그램의 새로운 전개", 월간 방송문화 (2001년 2월), 한국방송협회, pp. 4-5.

기획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은 바로 저널리스트적인 시각과 인식이 녹아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적당히 찍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소비하는 사적인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며,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파로 전달된다면, 이미 공공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 기획에서부터 마지막 종합편집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공공의 눈높이와 객관적인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

셋째, 공공의 관심사의 영상적 표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방송되는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크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활상'의 다양한 재조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은 시청각 매체로서 영상미와 예술적 표현 방식을 중요시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일상성과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영상미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분명 시청자들의 감동의 폭도 증대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언론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사에 집중을 하면서, 동시에 예술적 영상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식의 건강성이 중요하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바로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편파보도이다. 정부권력이나 자본과의 힘 겨루기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실망하게 된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어 공공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 보다 전문화된 의식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다는 남다른 의식과 철학적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비디오저널리스트로 활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첨단 디지털장비를 들고 공공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영상메시지로 담아내려는 열정과 인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진실을 전하려는 순수성이 내재된 시대적인 소명감을 안고 있어야 한다.¹³⁾

4.2 VJ프로그램의 장점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 VJ가 방송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997년 IMF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된다. 즉, IMF이후 VJ라는 단어는 가속도를 가지고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 배후엔 바로 제작비 절감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이 일차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었다. 제작에서 VJ를 기용하면서 제작비 산출에서 프리랜서 카메라맨의 하루일당 정도를 제작비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의 VJ는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그 정의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등장할 정도로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VJ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흔히 하청이라고도 표현하고 촬영 원본만 제공하면 그 임무가 끝나거나 잘해야 가편집 정도이다.

VJ프로그램들에서 주를 이루는 제작 컨셉트는 '새로운 세상보기'에 대한 접근에서 시작되었고, 방송기자와 PD들이 '뜰에 박힌 세상 보여주기'에

13) 여기에서 한국비디오저널리스트협회에서 작성한 'VJ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압력도 단호하게 배격한다. - 우리는 살아있는 타임머신이다. 우리는 인류의 유산과 전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증인이다. - 우리는 소외자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심신장애자의 생각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한다. 우리는 지구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생명을 수단화하지 않는다. -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 우리는 늘 공정성을 유지하며 진실을 담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리는 사소한 약속부처 지킨다. 우리는 취재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그들과의 사이에 어떤 약속도 지킨다. - 우리는 잘못을 빨리 바로 잡는다. 우리는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빨리 바로 잡는다. - 우리는 전세계의 국민적 정서를 존중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지역과 계층간 성별, 종교,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안주하고 있을 때, VJ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의 가능성을 모색했고, 비디오저널리스트들에 의한 공공저널리즘 혹은 대안저널리즘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내에서 지역 및 진보적 대중운동에 기반 한 영상단체로는 1985년부터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자 뉴스 제작단>, 전교조 산하 교사들이 주축이 된 <참교육 영상집단> 등이 있다.¹⁴⁾

이처럼 VJ는 대안적 시민영상운동의 차원에서 그 의미가 증폭되고 있다. 아직 방송에는 선보이지 않은 역량 있는 독립 비디오저널리스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독립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 영상제작 대중화의 전위에서 영상시민운

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방송민주화의 대안적 가능성을 지닌 집단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전통적 저널리즘과는 차별화 되는 시민저널리즘(civic journalism)과 참여적 민주주의 관점을 소형카메라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존 방송사에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의무화 조항이 방송법에 새로 삽입된 이후, 비디오저널리스트방식은 구체적인 시민영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소형카메라와 저널리즘이 만나 형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디오저널리즘인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저널리스트 방식은 현실적인 효율성의 장점과 더불어 대안적 공공저널리즘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표. VJ프로그램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명	제작사
KBS	영상기록 병원 24시	제이프로
	제3지대	리스프로
	TV문화기행	방송사
	뉴스투데이	방송사, 외부VJ
	일요스페셜	방송사
	세상은 지금 VJ특공대	방송사 외부
MBC	현장카메라 르포	서울제작단 외 방송사 방송사
	시사대거진 2580	
	MBC스페셜 6mm세상체험	
SBS	리얼코리아	자회사 방송사, 외부VJ 방송사
	모닝와이드 그것이 알고싶다	
PSB	리얼터치, 오늘	방송사, 외부VJ
TBC	VJ리포트 6mm세상	방송사, 외부VJ
EBS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뉴스	외부
iTV	리얼TV	방송사, 외부VJ 방송사
	리얼TV 특집	
Q채널	아시아리포트	에센스프로덕션

4.3 연구문제 및 방법

디지털 다채널 방송시대에 따른 프로그램 수준의 문제는 이미 불거졌다. 사람들은 다채널화에 따른 뭔가 색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하고, 기존의 제작 틀이나 방식 등에서 갑갑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방송장비의 급격한 보급으로 방송사 밖의 프로그램제작자들로 명명되는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활약은 참으로 눈부시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다채널화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세상의 얼굴을 보여주고, 때로는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방송의 생명력은 강해지고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욕구의 중심에 비디오저널리스트가 등장하였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상파방송은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VJ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물론, VJ프로그램이 디지털방송장비의 확대 보급과 방송사의 경제논리가 부합되어 우리나라

14) 주명진(1999) : “제 1회 비디오저널리스트 포럼을 개최하며”, 제 3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 비디오저널리스트 포럼 자료.

방송사에 편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VJ프로그램만의 독특한 매력과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즉, 기존의 방송사 내부에서만 기획되어 방송하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목소리와 시각이 내재되어 있고, 공공의 참여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VJ프로그램은 방송 제작의 주체자인 비디오저널리스트가 제도권(방송사에 소속된 PD 등) 내부의 시각 탈피가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은 결국 공공저널리즘 실현과 연결되어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방송시대의 총아' '영상게릴라' '특공대'라고 불리는 비디오저널리스트의 공공저널리즘 수행을 위하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문헌 연구들과 방송 현장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 맺는 말 : 공공저널리즘 수행자로서의 VJ(Video Journalist)

언론은 그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과 같다. 특히 텔레비전은 그 사회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을 진실하게 담아내어야 하고 진정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은 공공재로서 그 주인은 바로 공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방송은 진실되게 공공의 입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한 자성의 소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보장과 전달을 위해서 방송사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보이지 않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은 여러 가지 규제와 압력으로 인해 진정한 공론의 장이나 공공저널리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

하고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진정한 민주사회의 미성숙에 있다고 하겠다. 즉, 공공저널리즘의 활성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성과 의식 수준이 필수적이며, 이를 수렴하여 언론의 견인 역할이 수행되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언론은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가하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정당한 의제를 공공에게 던져주기도 하며, 공공이 제시하는 의제에 대하여 공론화 하여 풀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방송기술은 수용자들의 적극성이 발휘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적극성에 의하여 공공의 힘은 발휘되고 민주주의의 성숙도 높아지리라고 본다.

그러나 방송은 신문이나 인쇄매체와는 달라서, 영상 문법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이 있어야 영상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즉, 방송매체를 통한 공공저널리즘을 꽃피우기 위한 방법으로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아날로그시대보다 더욱 확대된 방송제작자들의 양적 팽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철학을 가진 시민들 출신의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눈부시고 투철한 활약으로 공공의 소재들을 성실하게 담아서 전달할 때, 공공저널리즘의 생명력이 강화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공공저널리즘은 뉴스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와 연관된 새로운 언론의 형태이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란 정보에 정통한 공중(informed public)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이란 자신의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중을 말한다. 만일 민주주의가 이러한 의미의 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신문이나 방송이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또한 언론이 없다면, 시민들이 공중의 형태로 모양을 갖추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공공저널리즘 운동의 핵심이다.¹⁵⁾

결론적으로,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은 기존의 방송제작팀들과는 차별화 되게, 발로 뛰는 현장성과 공중들 틈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밀착성,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공공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영상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저널리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디오저널리스트를 통하여 디지털방송이라는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한 단계 성숙된 공론의 장으로서의 방송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강형철(1998) : “방송제작방식의 변화에 관한 논의-수확체증의 개념을 중심으로”, 방송연구(1998년 겨울호).

[2] 김민남(1998) : “공공저널리즘과 한국언론”, 커뮤니케이션북스.

[3] 김광욱(2001) : “VJ프로그램의 새로운 전개”, 방송문화(2001.2), 한국방송협회.

[4] 김민선(2001) : “비디오저널리스트의 현재와 미래”, 방송문화(2001.2), 한국방송협회.

[5] 김영석(2000)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

[6] 노주희 역(1998) : “방송의 자유”, 일본민간연맹 연구소 편, 한국방송협회.

[7] 박영상(1999) : “바뀌어야 할 방송 저널리즘”, 한국방송진흥원 주최 토론회 자료.

[8] 윤태진·강내원(2001) :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2001.겨울), 한국언론학회.

[9] 이엔 앙 지음, 김용호 옮김(1998) : “방송수용자의 이해”, 한나래.

[10] 크리스 바커, 하종원·주은우 옮김(2001) : “글로벌 텔레비전”, 민음사.

[11] 최영목(1997) :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2] 최이정·박정의(2000) : “영상제작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의미”, 방송연구 2000 여름호, pp.336-337.

[13] 최종을(2001) : “VJ프로그램과 대안저널리즘”, 방송문화(2001.2), 한국방송협회.

[14] Michael Rosenblum : “Video Journalism : Theory & Application”, pp. 1-2.

[15] Jay Rosen, “Behind Public Journalism,” in *AMPE Leadership Report : Public Journalism- What It Means, Who Is Practicing It, How It Is Done*, p. 4.



조 속 희

- 1986년 영남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문학사)
- 1986년~2000년 대구문화방송 차장
- 1999년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치학석사)
- 2001년 경남정보대학 방송영상계열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박사과정 (전공: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 관심분야 : 영상커뮤니케이션(VJ 제작시스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방송 편성과 제작

15) 윤태진·강내원(2001) : 위의 논문, p. 315.